



제21호

2012년 5월



사립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전지민, 이선화 / 발행일 2012년 5월 16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227-0650)

>>>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학교폭력 단상



이사 한 은 수
(원광고등학교 교장)

요즘은 텔레비전만 켜면 학교 폭력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이 빈번하게 방영된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도 그러한 청소년 문제의 공범자다.’ 라는 반성적 자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지만 아무도 “그것은 내 탓이오.” 하고 나서지는 자가 없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요즈음 교사가 아이들이 문제야.”나 “학교가 큰 일이야.”로 귀결되어 한바탕 몰아붙이곤 이제 되었다는 듯이 잊어버린다.

들에 핀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도 허투루 그냥 오는 법이 없는 것이 세상이다. 하물며 학교폭력은 더더욱 그렇다. 경쟁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천민자본주의 사회에 만연된 어른들의 폭력성의 그림자가 학교폭력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교이전에 우리 사회의 폭력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어른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을 대가족 속에서 그리고 지역 공동체 성격이 강한 농촌 마을에서 보냈다. 대가족이나 지역 공동체는 그 내부에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기능과 교육기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지금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되어 핵가족화가 가속되면서 가정의 보호기능, 교육기능은 공동화된 지 오래다. 지역사회 역시 공동체 성격이 사라지면서 아이들에 대한 보호기능, 교육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의 교육적 인프라가 우리사회에 갖추어지지 않으면 청소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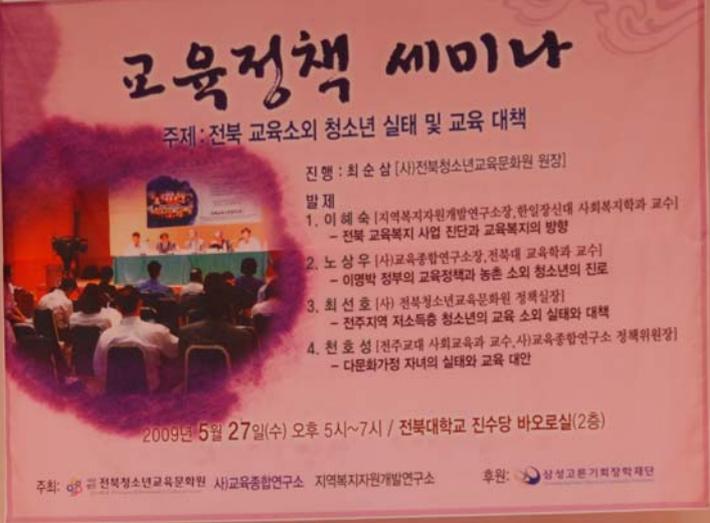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경쟁적 입시 교육을 협력과 상생의 교육으로 바꾸고, 일상화된 정치적, 경제적, 지역적, 계층적 사회의 폭력성을 걷어내어 아이들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차단해 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

밝고 건강하며 꿈과 희망을 담은 다양한 대안의 교육적 인프라를 만들어 미래를 살아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된다. 아침이슬처럼 영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고 싶다.

2012년 5월

신는순서

- 02 인사말 / 학교폭력 단상 · 한은수
- 03 소식 하나 / 청소년교육연구소 활동 소식 · 최선호
- 04 소식 둘 /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 진행 중 회원동정
- 05 소식 셋 / 지역 청소년들에게 과학연극 공연 무료 제공
- 06 교단일기 -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희망이다. · 나종민
- 07 소식 넷 / 역사 · 문화 함께 하는 걸기 “5월 5일(토) 무주, 천연염색체험과 칠연계곡” · 장재성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청소년교육연구소 활동 소식

>>>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연구소는 2005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 설립될 때 부설 연구소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그동안 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연구소는 독자 사업보다는 문화원 이름으로 연구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매년 5월에 “교육정책 토론회/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2008), 전북지역 교육소의 청소년 실태 및 대책(2009), 교원평가제(2010), 학생인권조례 제정(2011) 등을 주제로 세미나/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과 2010년에는 전북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 ‘아르케’ 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책읽기 모임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소 내에 독서토론 동아리인 ‘아르케’ 모임을 2009년부터 만들어 1달에 1권씩 책을 읽고, 사회에 관한 이해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유러피안 드림”, “후불제 민주주의”, “경험과 교육”, “배움의 공동체”, “수업비평” 등의 독서토론을 해 왔습니다.

>>> 연구소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문화원 회원 중에서 교육연구와 교육정책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장 최선호, 연구국장 양희전을 중심으로 초중고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연구에 관심이 있는 회원님들이 연구소에 더 많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2012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2012년에는 “전북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봄·여름·가을·겨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화)에는 “혁신학교와 학교 혁신”을 주제로 봄 세미나를 엽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연구소 회원들의 교육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전북 교육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 진행 중

우리 문화원에서는 지난 4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18시~21시)에 40여분의 선생님들이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 를 제10강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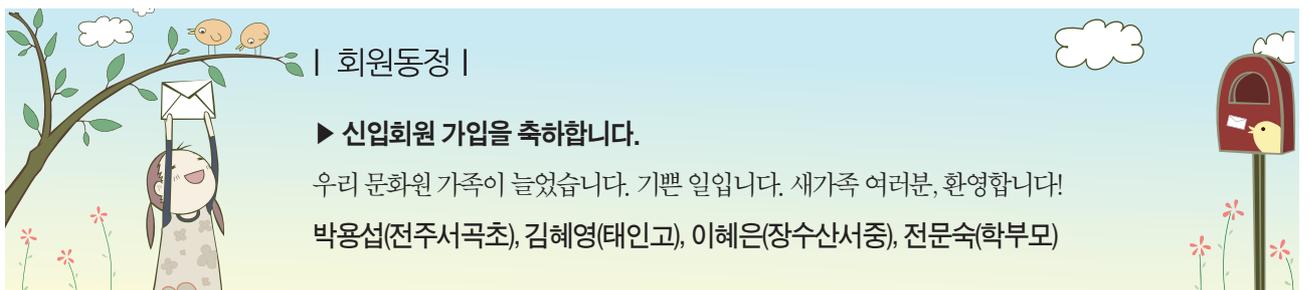
제1강 '집단상담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이라는 주제로 논산대건중학교 조한일 선생님께선 '학생들과 평생 믿음의 관계로 발전되고 학부모들과도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며, 조용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대목에서는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였고, '에고(Ego)그램을 통한 행복한 나의성격 찾기' 모듬 활동은 모듬원들이 각각 일부분씩 그려 완성된 자신의 모습과 간단한 평가를 받아 한 사람씩 발표하면서 연신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고, 하루 종일 학생들 지도에 심신이 지쳐 있던 선생님들의 피로회복제가 되었다.

그리고 제2강 '학생 인권의 이해' 라는 주제로 전북대 법학대학원 송기춘 교수님은 '학생도 인간으로서 가지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인격적 주체이기에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혹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라는 대목에서는 모두를 지당하다며 동의를 표하였고,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엔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을 적절한 답으로 선생님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제3강 '청소년의 심리 이해' 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전주대학교 심리학과 이호준 교수님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갈등을 경험했던 선생님들을 살아 있는 학교 현장의 감각으로 고민을 덜어주는 강의를 통해 피곤함에 지쳐있던 선생님들을 흡족하게 하였다.

한편 교단에 대한 신선함이 물씬 풍기는 한 선생님은 매주 목요일 저녁 문화원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은 아이들을 더 많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고,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선배 선생님의 모습이 볼 때마다 꽃보다 아름다워 보여 사표로 삼고 싶다며 귀염을 토하였고, 앞으로 제4강, 제5강..... 10강까지 이어질 남은 연수를 더 크게 기대하고 싶단다.





| 회원동정 |

▶ **신입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우리 문화원 가족이 늘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용섭(전주서곡초), 김혜영(태인고), 이해은(장수산서중), 전문숙(학부모)

지역 청소년들에게 과학연극 공연 무료 제공 과학의 달 맞아 <극단 사이꾼> 초청

- 4월 20일(금)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성황리에 마쳐 -

우리 문화원이 과학의 달 4월을 맞이하여, 사)한국과학커뮤니케이터협회 과학연극 팀 <극단 사이꾼>을 초청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료 과학연극 공연을 제공했다. 평소 과학연극 공연을 접하기 쉽지 않은 도내 초·중학생들에게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결집한 공연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적 감수성을 한껏 키워주었다.

공연은 순수 창작 과학연극으로 과학원리 중, '빛의 반사와 혼합, 난반사, 구름의 생성 원리'를 다루었고, 오후 2시(초등학생)와 4시(중학생)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초등학생(4~6학년) 243명, 중학생 253명, 초·중등교사 40여명이 관람했다. 공연 후에는, 과학원리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극단 사이꾼>이 준비해온 5,000원 상당의 과학 키트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만들기 체험을 함께했다.

<극단 사이꾼>은 과학커뮤니케이터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과학강사들로 이루어져,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데 우리 문화원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과학연극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잖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유치한 것이다.

사)한국과학커뮤니케이터협회(KASC)는 과학 대중화를 위해 설립하였고, 청소년과 과학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쉽고 친숙한 방법으로 과학 원리를 전달하기 위해 <과학연극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대표 임주희는 2008년 과학문화인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희망이다.

나 종민 (김제검산초 교사)

학교 가는 길에 만나는 따뜻한 아침 기운과 싱그러운 초록빛 가로수가 너무나 반갑다. 유난히 차가운 바람의 봄 시샘이 많았던 날씨 덕분에 3월 한 달을 감기로 고생해서 그런지 따뜻한 날씨가 더 반가운 것 같다.

돌아보면 3월에는 몸이 안 좋아서였는지 마음도 활짝 열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벼운 아이들의 장난을 웃어 넘어갈 일도 별을 주고 혼낸 게 한 두 번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경직되고, 집에 가서도 찻잔만 마음이 오래갔다. 밤이면 다음날을 생각하며 내일은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하자고 결심하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다.

감기로부터 해방되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자 2월과 3월에 야심차게 계획한 학급경영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기운이 생겼다. 아이들과 아침 뇌 체조를 시작하였고, 부모님께 칭찬 메시지를 보내고, 아이들이 즐거워할 이벤트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밝아짐을 느꼈다. 아이들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일까?

나는 아이들의 희망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나의 상태에 따라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도 해석이 달라진다.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을 때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 교사가 먼저 자기를 정화하고 건강해져서 사랑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어 나가자.

선생님의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아이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파이팅!



역사·문화와 함께 하는 걷기 5월 5일(토) 무주, 천연염색체험과 칠연계곡

장재성 이사 (전주서중 교사)

‘어린이날’이라서 문제가 있었지만 매월 첫째 토요일이라는 상징성을 살리고, 어린이날의 번잡함을 피하고자 하는 회원을 배려하는 의미도 있었다. 어른 13명과 어린이 6명, 모두 19명이 참석해서, 오전에는 천연염색체험을, 오후에는 덕유산 칠연계곡 걷기를 했다. ‘시골 청년’으로 유명한 미술과 박종관 선생님이 이번 염색체험과 걷기 안내를 맡아주셨다.

소목 삶은 물에 스카프가 될 만한 크기의 실크를 담갔다가 명반이나 산화철, 산화동에 담그니 여러 가지 색이 드러났다. 때로는 보라색, 때로는 진분홍인데 색이 오묘하여 실크를 다루는 사람에게 따라, 담그는 시간에 따라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다들 서로의 스카프가 가장 멋지다고 주장하면서 하루는 어린이가 되었다. 대부분은 아내와 남편에게 선물을 하겠노라고 말하면서 담그고 또 색을 고르고, 골랐으며 한번으로 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염색을 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멋진 스카프를 보고 몇몇 여성 선생님들은 두세 장씩 체험을 하기도 했다. 노장환 선생님의 네 아이를 포함한 어린이들에게는 박종관 선생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하나씩 주기도 했는데 여느 어린이날 행사도 이런 푸짐한 선물은 없었을 것이다.

점심을 먹고 안성의 칠연계곡 걷기를 시작했다. 칠연폭포로 가는 길은 물이 풍부했다. 5월 1일부터 공원을 개방했는데 사람도 적고 맑은 공기와 연초록 이파리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40여분 걸어 도착한 폭포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중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산을 내려왔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시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 다음 달에 합산하여 출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905-0218

〈 ※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 보다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이 름		회 원 (), 후원회원 ()
직 업 / 직 장		담당업무(교과)
직 장 전 화		집 전 화
손 전 화		
E-mail 주소		
직 장 주 소		
자 택 주 소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월 이 체 액	회비 1만원 + 후원금()만원	CMS 자동이체 여부 예(), 아니오()
계 좌 번 호		(은행명)

제12회 동의마당2012 전북청소년 통일한마당

2012. 6. 2(토)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에 앞장서는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제 12회 전북청소년 통일한마당』이
6월 2일(토) 전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함께 여는 통일 세상을 꿈꾸며 마련된 이번 통일한마당에서는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대회와 길거리(3:3) 농구대회가 개최됩니다.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회종목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초·중·고등학생 총 20팀
09:30~12:30 / 전주대학교 JJ아트홀

길거리(3:3)농구대회 고등학생 총 40팀(팀당 5인)
09:00~17:00 / 전주대학교 야외농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옆)
(우천시 : 체육관)

참가대상 전라북도 초·중·고등학생

시 상

노·가·바 : 전라북도교육감상 전주대총장상 전주교대총장상 전주시장상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원장상 전북겨레하나상임대표상
길거리 농구 : 우승, 준우승, 3위 2팀, 8강 4팀

주최: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후원: 전라북도교육청, 전주대학교, 전북겨레하나, 국민생활체육전북농구연합회

교육정책 세미나

- 주제 : 『혁신학교와 학교 혁신』 -

- ◆ 일시: 2012년 5월 22일(화) 오후 6시 30분 ~ 8시
- ◆ 장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세미나실 (전주 근영여고 앞 3층)
- ◆ 주최: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 주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청소년교육연구소 / 교육정책 동아리 '아르케'
- ◆ 후원: 전북혁신학교교사네트워크 /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

* 발표자 / 발표 주제

주 제	발표자
전북혁신학교 운동의 성과와 과제	박일관(전북도교육청 장학사)
전북혁신학교 성공을 위한 제언	최선호(청소년교육연구소장)
혁신학교와 학교 혁신	양은희(군산 회현중학교 교사)
학교 혁신 과정에서 학부모의 역할	윤성이(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장)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www.blue21.or.kr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063) 227-0650